'왕조 시대' 재현하는 SK… 2·5위는 치열

키움·두산 2위 싸움… 롯데·한화 충격적인 몰락
순위 조기 양극화에 지난해 대비 관중 7% 감소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챔피언 SK 와이번스가 '왕조 시대' 재현을 향한 칠부 능선을 넘었다.

SK는 17일 현재 64승 1무 30패를 거둬 2위 그룹을 7.5~8경기 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했다. SK는 시즌 50승, 60승을 차례로 먼저 밟아 한국시리즈 직행 확률을 78.6%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정규리그 2위로 한국시리즈에 오른 SK는 두산 베어스를 꺾고 2010년 이래 8년 만이자 통산 4번째로 축배를 들었다.

우승의 기쁨을 누렸지만, 두산보다 무려 14.5경기나 뒤져 정규리그 2위에 머문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올해엔 정규리그부터 독주를 예고했고, 3강으로 평가받은 키움과 두산을 여유 있게 따돌려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가는 중이다.

5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도전하는 두산은 전반기에만 34년 만에 15승을 채운 에이스 조쉬 린드블럼과 새 외국인 타자 호세 페르난데스의 맹타로 2위를 달리다 전반기 막판 3위로 밀렸다. 지난해 다승왕 세스 후랭코프의 부진과 전반적인 타선의 침체로 SK의 벽을 넘지 못했다.

2위 키움은 막강한 화력과 짜임새 있는 마운드, 교체 선수들의 맹활약에 힘입어후반기 두산과 치열한 2위 다툼을 예고했다. 투타 균형이 잘 잡혀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머문 2014년 이래 5년 만에 대권에 도전할 시기가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젊은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주면서도 순위를 조금씩 올린 키움은 후반기 안우진, 이승호, 서건창 등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을 모두 투입해 선두 SK를 맹추격할 참이다.

LG 트윈스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악몽을 딛고 4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롯데 자이언츠와 한화 이글스의 동반 추락은 전반기를 강타한 또 다른 화제였다.

롯데는 '원 팀 자이언츠'로 새롭게 출발했지만, 선발과 불펜의 연쇄 붕괴, 투타엇박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하위로 떨어졌다. 한 때 kt wiz,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등과 5강 경쟁을 벌이기도 했으나 5월 22일 10위로 내려간 이래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6위를 지키던 한화도 외국인 선수의 부진과 공수 난맥이 겹쳐 6월 18일 9위로 강등된 뒤 제자리만 맴돌았다. 두 팀은 노경은(미계약), 이용규(항명) 등 베테랑 선수들과의 문제로 시즌 초반부터 골치를 앓았던 터라 순위 추락과 함께 팬들의 비난 강도도 거셌다.

5강과 5약으로 일찌감치 순위가 갈린 탓에 프로야구 관중은 작년과 비교해 7% 감소했다. 작년 7월 22일까지 544만8491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지만, 올해엔 472경기를 치른 17일까지 누적관중은 508만4203명에 그쳤다. KBO 사무국은 포스트시즌 막차 탑승권이 걸린 5위 싸움이 후반기 흥행에 도움 주기를 희망한다.

연합뉴스

18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 프리 콤비네이션 예선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초 출전에 결승 일궈낸 아티스틱

프리 콤비네이션 예선 통과
선수들 "결승은 더 신나게"

안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줄곧 다른 선수들의 결승만 지켜보다 마지막 출전 종목에서 마침내 예선을 통과한 한국 아티스틱 수영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주장 김소진(서울시수영연맹)은 18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프리 콤비네이션 예선을 마치고 "결승 진출이 대회 목표였다. 즐기면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결과가 따라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한국은 예선에서 77.7점으로 11위에 올라 12팀이 진출하는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수영에서 결승에 든 건 2009년 솔로 자유종목의 박현선 이후 10년 만이다.

특히 2003년부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추가된 프리 콤비네이션 종목에는 한 번도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결승행 성과를 냈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둔 올해 들어 선 프리 콤비네이션 종목 국제대회에서 입상 성적을 남기며 희망을 키웠고, 안방에서 목표를 이뤄냈다.

20일 오후 7시 열리는 프리 콤비네이션 결승은 이 대회 아티스틱 수영을 통틀어마지막 종목이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기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하겠다는 게 선수들의 각오다.

구예모(마포스포츠클럽)는 "다른 종목보다 음악이 신나고 분위기도 훨씬 밝아 호응도 더 좋을 것 같다"며 "첫 결승이니 더 기분 좋게, 신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혁재(제주사대부고·왼쪽)와 이예지(제주여고)가 2019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고등부 혼합복식 결승에 진출했다. 사진=제주도배드민턴협회 제공

이혁재·이예지 전국대회 결승 진출

학교대항배드민턴 고등부
제주여중은 단체부문 3위

이혁재(제주사대부고)와 이예지(제주여고)가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9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이혁재·이예지조는 18일 이번 대회 고등부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이강현(김천생명과학고)·서유림(김천여고)조를 세트 스코어 2-0(22-20, 21-15)으로 제압했다.

이혁재·이예지조는 지난 13일 개막해 전라남도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및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 1라운드(64강)에서 이동건(매원고)·고효정(영덕고)조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이긴 뒤 2라운드에서도 김네오(전대사대부고)·김주형(광주체고)조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제압했다.

3라운드에서도 안강태(충주공업고)·조연희(충주여고)조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가볍게 누른 이혁재·이예지조는 8강전 상대인 김해든(천안월봉고)·정휘나(온양용화고)조를 세트 스코어 2-1로 따돌렸다.

이혁재·이예지조는 19일 결승전에서 이상협(진광고)-김지원(치악고)조와 정상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여중은 이번 대회 여자중학부 단체 부문 3위를 차지했다. 16강전에서 화순제일중을 3-2로 이긴 제주여중은 8강전에서도 김천여중을 3-1로 제압했지만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 우승팀인 명인중에 0-3으로 패해 공동 3위에 올랐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청소년 맞춤형 체력 프로그램 '시동'

도체육회 체육활동지원 사업
스포츠지도사 등 강사 모집

올해 2학기부터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해 체력증진 및 바른 인성함양,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2019 청소년체육활동지원(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운영)'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평생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회는 '청소년 건강 체력 프로그램'을 지도할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총 8명이다. 응시자격은 전문스포츠지도사와 생활스포츠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국가자격증을 소지(우대)하거나 체육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된다.

최종 합격한 강사는 오는 8월 중 실시되는 강사교육을 이수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4개 초·중·고에서 청소년 건강 체력 프로그램을 지도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 낮 12시까지이며,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www.jejusports.or.kr)에서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체육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hankukin6077@daum.net)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7-7143.

표성준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여행업등록 제234호
2억보증보험가입업체
※상기 요금은 출발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제주직항
백두산완전정복/노쇼핑/노옵션 ★착한패키지★
백두산 4일(5성급)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준5성호텔, 특식 2회, 전신마사지 1회
노쇼핑/산위숙박
상해/황산 4일
7월~10월 매주 목,금요일출발
895,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8,957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산위 1박, 특식 2회
REAL 마카오 4명출발
마카오 완전일주 4일
7월~9월 매주 수,금요일출발
797,6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7,976적립
노쇼핑, 마카오 1박 특급호텔 업그레이드
세계문화유산 투어, 덤보레스토랑, 에그타르트 제공
온천여행♨
후쿠오카/유후인/벳부 4일
7월~8월 매주 토요일출발
698,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80적립
가이드 및 기사 경비 포함, 후쿠오카 트윈룸 2박
+벳부 온천호텔 1박, 온천욕♨
대한항공
북경+태항산/대협곡/팔천협 4일
7월~10월 매주 수,목,금,토
697,8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78적립
고속열차 왕복, 5성급, 태항대협곡(도화곡/환산선/왕상암)+팔천협, 특식 3회
남들보다 특별한
방콕(초특급)/파타야(초특급) 5일
7월19일 ~8월31일 매일 출발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쇼핑3회 제한〉+전통안마2시간+알카자쇼+런치크루즈+왕궁
★착한패키지★ 오감만족/노쇼핑/노옵션
방콕/파타야 초특급 5일
7월19일 ~8월31일 매일 출발
9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90적립
♦왕궁+알카자쇼♦ 호텔씨푸드+산호섬+농눅빌리지+코끼리트래킹+안마2시간+시티투어
품격 삼색여행
홍콩/마카오/심천 4일
7월~10월 매주 수요일출발
996,7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9,967적립
★나이트투어+베네시안카지노★ 피크트램/빅토리아산정+점보/덤보레스토랑
8명특가 실속 호텔업
대만 타이페이/화련/야류/지우펀/스펀 4일
7/12,30 8/17,21,27 9/10,18
699,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90적립
〈특급호텔 무료 업그레이드〉 고궁박물관/야시장/해양공원+몽골리안BBQ/샤브샤브
★가격혁명★ 극한특가/전일투어
오사카/나라/교토/고베 4일
세미더블, 시내 3연박 7월~8월 매일출발
691,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10적립
〈10명 선착순 파격특가+간사이 핵심 전일투어〉 시내 3연박
동경/가마쿠라/요코하마 4일(트윈)
7월~10월 매주 수,토,일요일
692,000원부터
투어마일리지 약 6,920적립
〈10명 선착순 파격특가+동경 및 근교 핵심 전일투어+ 동경시내 또는 디즈니랜드 선택일정 가능〉 전일정 트윈
모두투어 전문판매대리점(가자항공여행사) T. 747-0404, 744-6068
· 공통사항 – 왕복항공권,전일정호텔(2인1실),관광지입장료,일정의 식사포함,최소 10명 출발가능, 인솔자동행(부분별),유류할증료포함,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 – 비자대(부분별),기사/가이드경비 (부분별), 현지선택관광
고객센터: 064-747~0404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김현준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대표: 우종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5층 사업자 등록번호: 202-81-4529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중구 제03500호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1989-04(서울특별시 중구) 영업보증보험: 일반여행업보증 15억 1천만원, 기획여행업보증 7억원,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출발지: 제주공항 교통: 항공/전용차량 숙소: 일급호텔이상(상품 일정에 준함) 식사: 상품에 포함(단, 자유일정시 불포함) 최소출발 기준인원: 있음(상품별 상이) 선택경비(선택관광):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detour.com)를 참고해주세요. 가이드 및 기사경비: 현지 별도 지불(일부상품제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여행상품 가격 포함 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 개발 기금, 여행자보험, 식사요금, 현지관광지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보단계: ● 여행유의 ● 여행자제 ● 철수권고 ● 여행금지 ※여행금지 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이라크(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2016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2016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2016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2016년 7월 31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